



공격은 '화끈'...수비는 '화근'

K리그1 전반기 결산

16라운드까지 뜨거운 경쟁을 펼쳤던 K리그1이 A매치 휴식기를 맞았다. 3월 개막 후 숨가쁘게 달려왔던 K리그1을 돌아본다.

16라운드를 끝낸 K리그1 선두 자리에는 '디펜딩 챔피언' 울산(9승 4무 3패·승점 31)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2위 김천(8승 6무 2패·승점 30)과는 승점 1점 차, 3위 포항(8승 5무 3패·승점 29)과도 2점 차에 불과하다. 지난 시즌 16라운드 종료 기준 1위 울산과 3위 서울이 11점 차가 났던 것을 감안하면 치열한 선두 경쟁이다.

개막전 승리 시즌을 연 울산은 6라운드부터 5연승을 달렸지만 이동경(7골 5도움)의 입대와 설영우의 어깨 수술로 3위까지 내려서기도 했다.

하지만 울산은 16라운드 전복전에서 이타루의 '극장골'로 1-0 승리를 거두고 단독 선두에 자리했다. 주민규·루빅스·엄원상(이상 4골), 마틴 아담(3골) 등 고른 화력이 돋보인다.

김천은 11경기 연속 무패(5승 6무)를 기록하는 등 승격팀 돌풍을 만들고 있다. 16라운드까지 패배는 단 2경기. 휴가도 반납하고 골대를 지킨 김준홍을 필두로 A대표팀에 처음 부름을 받은 수비수 박승욱 미드필더 원두재, 공격수 김태현과 김현욱 등 고른 활약이 강점이다. 진짜 순위 싸움은 주전급 선

광주FC, 6승 1무 9패 7위

개막전 연승 '산뜻한 출발'

6연패 등 16경기 26실점

광주다움으로 상위권 도약을

수들이 전역을 하는 7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이지만 이동경, 이동준, 맹성웅, 원기종 등 신병들의 가세가 예상된다.

신임 박태하 감독이 지휘하고 있는 포항은 '태하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있다. 포항은 10경기 연속 무패(7승 3무)를 기록하는 등 선두권을 지키고 있다. 추가시간에 눈부신 결정력을 보여주는 정재희(7골 1도움)와 '젊은피' 이호재(3골 3도움)의 화력이 매섭다. 완델손은 포항의 첫 '외국인 선수 주장'으로 맹활약하며 5차례 베스트11에 선정됐다.

승강플레이오프 끝에 기사화생한 강원FC와 수원FC는 '언더독'의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시즌 6승에 그쳤던 강원은 최근 4연승을 달리는 등 벌써 8승(4무 4패·승점 28)을 수확했다. 8골을 넣은 이상현을 앞세운 강원은 29골로 최다득점 2위다. '준프로' 양민혁의 활약도 눈에 띈다.

2006년생 양민혁은 올 시즌 4골 3도움을 기록하며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수원FC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는 등 8승 3무 5패(승점 27)로 5위에 랭크됐다.

사령탑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는 김은중 감독이 놀라운 지도력으로 수원FC의 질주를 이끌고 있다. 이승우가 8골 2도움, 안테르손이 7도움을 기록하며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시즌 76골을 내주며 최다 실점을 기록했던 수비진도 16라운드까지 20골만 허용하며 공수의 밸런스가 좋다.

중위권 싸움도 치열하다. 6위 제주유나이티드(6승 2무 8패·승점 20점)와 9위 FC서울(4승 5무 7패·승점 17)의 승점 차는 3점에 불과하다. 매 경기 순위가 뒤집히는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김학범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은 제주는 한때 4연패에 빠졌지만 이후 6경기에서 3승 1무 2패를 기록, 반동에 성공했다. 광주FC는 6승 1무 9패(승점 19)로 7위에 머물고 있지만 올 시즌 단 한 차례 무승부에 그치는 화끈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는 서울과의 개막전 2-0 승리와 함께 연승을 기록하며 지난 시즌에 이어 돌풍을 예고했지만, 수비가 흔들리면서 6연패 늪에 빠지기도 했다. 지난 시즌 전북과 최소실점 공동 1위(35실점)에 올랐던 광주는 올 시즌 16경기에서 26골을 내주면서 어려

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광주 특유의 공격 축구를 이어가면서 재도약을 노리고 있다. 이정효호의 황태자 정호연이 클래스가 다른 활약으로 중원을 지키고 있고, 가브리엘이 4골을 넣으며 새 전력으로 떠올랐다. 물 오른 이진희의 공격(4골)도 광주의 힘이다.

8위 인천은(4승 7무 5패·승점 16)은 최근 10경기에서 2승에 그치고 있지만, 7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했다. K리그1 득점 1위 무고사(9골)도 보유하고 있다.

김기동 감독으로 새판을 짠 서울은 최근 4경기에서 2무 2패에 그치고 있다. 특히 홈에서 5연패에 빠져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하지만 '슈퍼스타' 린가드가 부상에서 복귀한 뒤 최근 4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며 순위 싸움의 변수로 떠올랐다.

하위권에는 전북, 대전하나시리즈, 대구FC가 자리하고 있다. 나란히 3승 5무 8패(승점 14)의 성적표를 작성한 전북(19골), 대전(15골), 대구(14골)는 득점 차이로 10-12위에 포진하고 있다.

전북은 김두현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기고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대전도 황선홍 감독을 4년 만에 재선임하며 반동을 노린다. 대구도 시즌 도중 사령탑이 교체됐다. 최근 3연패를 기록한 박창현 감독은 에이스 세징야의 부상 복귀라는 호재 속 '최하위 탈출'을 노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여자 U-20 축구

콜롬비아 월드컵 D조

독일·베네수엘라·나이지리아와

'박윤정호' 한국 20세 이하(U-20) 여자 축구대표팀이 독일,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와 월드컵 무대에서 실력을 겨룬다.

2024 국제축구연맹(FIFA) U-20 여자 월드컵 조 추첨이 개최자인 콜롬비아의 보고타에서 6일(한국시간) 진행됐다.

한국은 독일,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와 D조에서 경쟁하게 됐다.

박윤정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2024 U-20 여자 아시안컵 4위 자격으로 월드컵 본선에 올랐다.

독일은 2023 유럽축구연맹(UEFA) 여자 U-19 챔피언십 2위, 베네수엘라는 2024 U-20 남미여자축구선수권대회 5위 팀 자격으로 월드컵에 진출했다.

나이지리아는 U-20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올랐다.

북한은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네덜란드와 F조에서, 일본은 뉴질랜드, 가나, 오스트리아와 E조에서 경쟁한다.

개최국 콜롬비아는 호주, 카메룬, 멕시코와 A조로 묶였다.

U-20 여자 월드컵은 이번 대회부터 본선 진출국이 16개국에서 24개국으로 늘었다.

4개 팀씩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며, 각 조 1-2위 팀, 그리고 3위 6개 팀 중 성적이 좋은 4개 팀이 16강 토너먼트를 펼쳐 챔피언을 가린다.

이번 U-20 여자 월드컵은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치러진다.

/연합뉴스

신진서 9단 54개월 연속 1위

한국 바둑의 절대 강자 신진서(사진) 9단이 지난달 LG배에서 중도 탈락했지만, 변함없이 랭킹 1위를 지켰다.



신진서는 한국기원이 발표한 6월 랭킹에서 1만389점을 기록해 랭킹 2위 박정환(1만19점) 9단을 370점 차이로 따돌리고 54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지난 5월 4승 1패를 기록한 신진서는 세계기전인 LG배 16강에서 한국랭킹 18위인 한상조 6단에게 패해 조기 탈락했다.

이 탓에 랭킹 점수가 32점이나 감소했으나 2위와 점수 차이가 커 여유 있게 1위를 지켰다.

지난달 8승 2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탄 박정환 9단은 랭킹 점수 30점을 추가해 2022년 3월 이후 15개월 만에 1만점을 재돌파했다.

변상일 9단은 3위를 지켰고 신민준 9단은 강동운 9단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섰다.

김병훈·설현준 9단은 지난달과 같은 6·7위에 이름을 올렸고 LG배 8강에 진출한 배태랑 원성진 9단은 두 계단 오른 8위가 됐다.

이창석 9단은 세 계단 점프한 9위, 김지석 9단과 안성준 9단은 공동 10위에 랭크됐다.

여기까지 중에서는 최정 9단이 22위에 자리했고, 김은지 9단은 일곱 계단 오른 46위, 김채영 8단이 열다섯 계단 오른 73위, 오유진 9단이 여섯 계단 상승한 90위를 차지했다.

조상연 초단은 지난달 제12기 하찬석 국수배 영재바둑대회 결승에 오르는 등 12승 5패로 99점을 획득해 24계단 뛰어오른 96위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한국인 첫 유럽핸드볼 챔프리그 우승 류은희 '올림픽 모드'로

스웨덴 훈련 대표팀 합류

한국인 최초로 유럽핸드볼연맹(EHF)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한 류은희(사진 왼쪽)가 7월 파리를 합류하며 준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에 합류했다.

류은희의 소속팀인 헝가리 코리리는 지난 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MVM 돔에서 열린 2023-2024 EHF 챔피언스리그 여자 결승 SG BBM 비에티그하임(독일)과 결승에서 30-24로 승리했다.

현재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유럽 리그에서 활약 중인 류은희는 역대 한국 선수 최초로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한 기록을 남겼다.

핸드볼이 단체 구기 종목 가운데서는 축구 다음가는 인기를 끄는 유럽에서 챔피언스리그는 말 그대로 유럽 최강팀을 가리는 대회다.

코리리와 비에티그하임의 결승에 1만8500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은 등 열기가 대단했다.

16개 팀이 출전해 조별리그를 거쳐 8강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정했으며 류은희의 소속팀 코리리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유럽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복귀했다.

류은희는 결승에서는 득점을 올리지 못했으나 에스비에르(덴마크)와 준결승에서 1골을 넣고 팀의 24-23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시즌을 마친 류은희는 5일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이 훈련 중인 스웨덴으로 이동해 대표팀에 합류했다. 헨리크 시그널(스웨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20일까지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 유럽 전지훈련을 진행한다.

류은희는 5일 스웨덴 도착 후 "여러 번 도전한 끝

에 우승하게 돼 기분이 좋고 기쁘다"며 "꿈만 같고 믿기지 않는 기분"이라고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 소감을 밝혔다.

그는 "휴식 없이 바로 대표팀에 소집돼도 이겨내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합류하려니 피곤하고 힘드니까"고 털어놓으며 "아직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 여운이 남아 몸이나 정신이 어지럽지만 잘 정돈해서 대표팀에도 잘 스며들겠다"고 '올림픽 모드 전환' 각오를 밝혔다.

류은희는 이번이 네 번째 올림픽 출전이다. 2012년 런던 대회에서 43골을 넣고 득점 3위에 올랐고, 우리나라도 4강까지 진출하며 선전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와 2021년 도쿄 대회에도 출전했으나 이때는 각각 조별리그 탈락과 8강 진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6월)
 일시 : 2024-06-01(토) ~ 2024-06-30(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이창훈 개인전 <도시의 비에로>
 일시 : 2024-06-07(금) ~ 2024-07-0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